

순천시 '수의계약' 끊이지 않는 잡음

순천시가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조정한 뒤 '특정업체 몰아주기', '측근 챙기기' 등 공사계약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에서도 수의계약 공사관련 특혜 및 청탁 등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지역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순천시는 수의계약으로 인해 민선 2기 시장이 구속되는 등 파문을 겪은 뒤 '업체선정과 관련한 금품수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등의 비리 의혹을 없애고 많은 업체에 낙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2년 5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용역·물품 계약에 대해 전자입찰제를 전면 도입했다.

이후 민선 4기 들어 지난해 8월 수의계약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 조

시장 재량사업 5건 중 3건 특정업체 편중계약 시장과 친분 드러나 특혜 시비...검찰 수사 착수

정했고 5개월 만인 올해 1월 또다시 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상한액이 오르면서 우려했던 공사관련 부작용도 다시 불거졌다.

순천시 A면사무소에 대해 '2009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기반조성공사, 시장과 시장 재량사업 등 42건의 공사 가운데 40%인 17건이 특정 건설사인 B와 C 업체에 편중 계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30건의 기반조성공사도 비교적 수익률이 좋은 농로포장 등에

40%가 집중 계약됐다.

게다가 시장 재량사업 5건의 공사 중 특수공정을 제외한 3건을 B건설사에 몰아줬다. 금액으로는 75%를 차지해 사실상 독식한 셈이나 다른 없다. 특히 B건설사 관계자가 현 순천시장과 고교동창으로 드러나면서 '측근 챙기기' 등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A면장은 "시장과 동창 관계인줄 알고는 있었지만 이를 업무에 두고 공사를 배정한 것은 아니다"며 "단지 B업체가 시공능력에서 높

은 평가를 받아 공사를 많이 줬을 뿐"이라고 해명하면서 시장과의 연관성을 경계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업계 D씨는 "수의계약에서 업체의 공정한 참여와 기회제공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고 일부 공무원, 시의원 등 실력자를 통하지 않는다면 공사 하나 따내기 힘들다"며 "A면의 경우 다분히 의도된 계약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순천시로부터 각 읍·면·동과 본청 회계과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집행과 특혜, 호호세력에 의한 청탁 등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일본 100여기업 만나 "광양으로 오세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설명회...후지감정소와 MOU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GFEZ·청장 백옥인)이 최근 '찾아가는 맞춤형 투자유치 설명회'를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일본 히로시마현 오노미치시와 도쿄 다치카와시에서 100여개 일본기업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 설명회와 개별 상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설명회에서는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장감 있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GFEZ 5개 지구의 개발계획과 읍촌 자유무역

지역, 국내의 기업들의 입주·투자 추진현황, 투자유치 인센티브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 현지기업 8개사를 대상으로 공장과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백옥인 청장은 히로시마 지역의 조선부품 회원을 대표하는 (주)해양총합기연, 하동 갈사만 현장시찰을 앞두고 있는 후지종합감정소와 일본기업의 GFEZ 투자유치 공동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FUKAE(특수차 가공

업), AUZAC(교량·조선부품), E-WA(친환경 수처리, 후지종합감정소(부동산 개발) 등 4개사가 조만간 광양지역을 방문, 투자의향을 밝힐 것으로 기대된다.

백 청장은 "한국과 일본간의 지난해 교역규모가 891억불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일본 조선부품업체의 투자를 유치, 한·일간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정수기자 chung47@

지역경쟁력 '광양' 전국 1위

광양시가 최근 제 2회 MK(매일경제) 지역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230개 지자체 가운데 전국 시(市)부에서 종합 1위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재정 및 공공자본, 인적자원, 생태·안전, 인프라 및 생산성, 세계화 등 5개 분야에서 총148개 지표를 계량화해 전국 2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MK 평가단은 ▲기업 유치 통한 일자리 창출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개척,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분사 이전 ▲광양항 활성화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유치 등 시책을 높게 평가했다.

이성용 시장은 "내년 7월 포스코 후판공장 준공을 앞두고 후방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글로벌 명품도시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MK 지역경쟁력 평가'는 21세기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세계 각 도시의 경쟁력 수준을 객관적인 자료와 실적을 근거로 계량화한 분석기반을 통해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국내에서는 가장 신뢰를 받는 평가기관 및 모델을 인정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 명품 농산물 10% 할인해 드려요" 광양제철소(소장 조노하)가 광양시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18일부터 20일까지 금호동 제철 협력회관 앞 광터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다. 장터에는 광양시 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쌀을 비롯해 시설원예작물과 축산물을 시중가의 80~90% 가격으로 판매한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여수·광양산단 '벤젠' 기준치 초과 환경부 "3.65ppb로 2배 검출"

환경부는 여수·광양 산업단지 지역의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조사한 결과 벤젠이 국내의 환경기준을 초과한 최고 3.65ppb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대기 중 벤젠의 환경기준은 1.5ppb이고 영국과 일본은 각각 1.5ppb, 0.9ppb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벤젠은

인체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대기오염물질로 지정돼 있다.

공장이나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가운데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은 0.4~0.8ng/m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금속 중 대기환경기준이 설정된 납의 농도는 0.02~0.03μg/m로

기준치인 0.5μg/m를 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의 노출 수준을 고려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발암위해도가 미국 환경보호청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포름알데하이드 등은 위해도가 기준보다 낮지만 일반 대기수준보다 높아 우선 관심을 뒤야 할 물질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벤젠의 배출허용기준을 30ppm에서 20ppm으로 강화하고 작업 중에 비산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주요 업종에 대한 시설관리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광양 호안제방 본격 복구

지난 8월 22일 침출수 유출사고가 발생했던 광양 지정폐기물처리장 주변 동쪽 호안제방 일부 구간의 복구공사가 지난 17일 본격 시작됐다.

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광양 매립지 사고구간에 누출수 차단 위한 지중 차수벽 설치와 지반안정화를 위한 압성토 시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중 차수벽은 소규모 장비를 이용해 추가 하중이나 진동의 영향없이 설치가능하고 내구성이 반영구적인 FJS(Free Jet System) 공법이 적용된다. 매립장에 인접한 포스코 호안도로 700m 구간에 우선 62개를 시험 시공한 후 강도 테스트 등을 거쳐 모두 875개를 설치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김정수기자 chung47@

새얼굴 "산림사업 경영혁신 이끌 것"

김종희 곡성산림조합장

“산림사업과 임업투자에 대한 혁신적인 경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컨설팅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종희(52) 곡성산림조합장은 “조합원들에 대한 조경수 위탁판매, 나무시장의 연중 개장, 휴양랜드 개설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상호금융 활성화와 함께 독립가 임업후계자 육성,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공개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곡성읍 출신인 김 조합장은 순천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1982년 곡성군 산림조합에 첫발을 내디뎠다. 순천시, 구례군, 곡성군, 장흥군 등지에서 상무로 근무하다 지난 2004년 곡성군에 전입해 그동안 산림조성 및 토목사업을 수행해 왔다. 가족으로는 문영옥씨와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계경기자 kjkim@

<p>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140, 5210 ☎011-8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대인동 소방서건-1번)</p> <p>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p> <p>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p> <p>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었던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p> <p>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며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p> <p>▶빌딩(임대용, 투자용) • 토지590평 건물4,500평(매가 210억) 보증금 100억/월세 5,000만원 • 토지590평 건물 750평(매가 98억) 보증금 40억/월세 2,000만원 용차 12억</p> <p>▶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회사사무, 병원, 학원, 기타부지 등) • 1,000평(임무용지)-매가 750만원 • 250평(유용기능)-매가 1,200만원 • 500평(임무상업)-매가 1,200만원</p> <p>▶기타용도 (농장) 동산동 약 2222평 평당 12만원 (농지) 삼락동 대포면 약 3,000평 평당 300만원(미트, 예사장 등 계획) (준 주거지) 용원동 대포면 1,300평 평당 350만원(미트, 예사장 등 계획) (주거지역) 정동동 2,300평 평당 450만원 한 가건물(양양)오양면 등 계획</p> <p>▶상가(매매)상무지구, 상무역세권 • 상가 150평(9층) 매대가 평당 450만원 개별방이 있음 학원, 독서실, 사무실 등 계획 • 세정 아울렛주변 역세권 상가 있음 대형의류매장가능 전화상당 환영</p> <p>● 부동산 교환상담 환영 ●</p> <p>맞춤주론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찾아드리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p>	<p>금산공인중개사 T.681-5888 H.011-601-5354</p> <p>(금호동 사원주 역 건너, 2순환도로변)</p> <p>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용지 (C1지역)매매</p> <p>위 치 상무병원, 롯데마트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4면 광로변)</p> <p>대 지 약 2850㎡, 가격 협의결정</p> <p>• 근린시설, APT신축, 병원,일반상가, 기타 중심상업시설 가능</p> <p>• 최고의 교통접근(광주시청 접근성과 5.18 광로변)</p> <p>• 광주 최고의 상권</p> <p>• 최고의 입지 상업지역</p> <p>• 현재 10층 신축건물 앞</p>	<p>한길부동산중개 광주서구 광동 1301-1(상무지구 5.18광로변) 상담전화 ☎011-647-4114</p> <p>주유소 매매</p> <p>북구 중흥동 1.250㎡ 매매가 12억(임대가) 대포면, 위치좋은, 공시지가이하 현 임대 수입 : 보증금 21,000만, 월 800만</p> <p>- 전원주택 매매 - 화순군 춘향면 용두리 69번지 대지 1,270㎡ 매매가 4,500만</p> <p>☎상담전화 ☎011-647-4114</p>	<p>금호부동산컨설턴트 ☎224-5959/010-2831-1733</p> <p>광주 전남권 부동산 10-35% 할인</p> <p>* 금매 부동산 중개 *</p> <p>* 경매 부동산 중개 *</p> <p>* 대출 부동산 중개 *</p> <p>부동산 투자는 금호부동산 컨설턴트와함께</p> <p>☎224-5959 / 010-2831-1733</p>	<p>경매전문회사 호남경매컨설팅</p> <p>무료 상담 ☎ 062)228-6600 H.P 010-5616-8988</p> <p>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2층) (법원·검찰청 정문앞, 광주은행 맞은편 2층)</p> <p>"23년 역사의 경매전문회사"</p> <p>▶유치권, 법정지상권등 정확한 권리분석 ▶통계자료와 시세분석에 의한 최적의 낙찰가 제시 ▶제1,2금융권을 통한 최저금리로 부족한 경락 ▶잔금 대출(낙찰가의 50%~80%) ▶소유주, 임차인들의 신속한 명도(이사)</p> <p>☎~지금 전화 주십시오! 전국 3만여건의 경매물건 중에서 원하시는 경매물건을 찾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p>
---	--	---	--	--	---